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림부는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 소재 종계(種鷄)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수의 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가금류에 피해가 큰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그리고 11월 27일 이 농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경계지역내 종계농장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추가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지원토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11월 29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의 건의에 따라 AI 발생지역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류의 살처분 대상은 당초 5농가 15만5천마리에서 55만5천마리가 늘어난 40농가, 71만마리가 된다.

11월 30일 현재 살처분은 5농가 15만5천마리가 완료되었다.

..... 중국

한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중국 농업부는 11월 29일 AI가 발생한 한국으로부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한반도와 인접한 6개 성에 긴급 통보했다.

중국 농업부는 이날 헤이룽장·지린·랴오닝·산둥·장쑤·저장 성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국경지대 가금류와 관련 제품 유통 및 무역 감독·관리를 강화해 한국의 가금류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AFP

중국 가금류 매매시장 폐쇄 모색

중국이 AI 퇴치를 위해 살아 있는 가금류 매매시장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가금류 시장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시장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AI 등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지만

신선한 고기를 좋아하는 식습관 때문에 살아있는 닭 등의 매매를 선호하고 있다.

- mbn

일본

한국산 삼계탕 수출 재개

AI 발생으로 한국산 가금류의 일본 수출이 중단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근 삼계탕 수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산 가금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도 삼계탕 수입은 재개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닭을 완전히 끓여 가공한 삼계탕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득한 성과이다.

이에 따라 삼계탕을 생산하는 (주)화인코리아의 경우 내년 3월까지 36만여 마리, 125만 달러 어치의 삼계탕을 수출하게 된다. 한국은 이처럼 삼계탕의 대일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AI 파동으로 산지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양계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BS

9월 조제품, 수입 계육수입을 상회

일본 재무성이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9월 무역통계(속보치)에서 계육조제품 수입량이 2만6,639톤으로 계육수입량(1만8,344톤)을 8,000톤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계육에서 조제품으로의 전환을 진행한 것이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계육조제품은 냉동식품인 튀김 등 현지에서 가열 가공한 것으로 태국과 중국이 많다. 양국은 이전 계육의 주요 수입선이었는데, 2004년에 연달아 발생한 HPAI의 발생으로 계육 수입을 할 수 없었다. 다만 가열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의 수입이 인정되어 수입업자 사이에서 가열 가공한 조제품 수입으로의 대체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2005년에는 연간 수입량이 30만톤을 돌파했다. 계육과의 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이번 대폭적인 차로 연전된 데 대해 계육의 생산, 판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일본식조협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 JAN

미국

농축산물 수출촉진 위해 3천9백만불 소요

미국 정부는 농축산물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39백만불(한화로 367억원)을 소요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요한슨 미농무부 장관은 “해외 시장 개척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중요하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국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 배분은 3가지 FAS 프로그램인 Foreign Market Development cooperater program, TASC 프로그램, QSP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 USDA



지구촌 양계뉴스

동물추적프로그램 자발적 등록토록 결정

질병발생시 추적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농장주와 목장주가 그들의 소, 돼지 그리고 닭을 등록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부시행정부가 11월 23일 밝혔다. 동물추적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농무부는 그것을 자발적 등록하도록 결정했다.

- AP

AI 백신 구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20일 AI 백신 2억 달러치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양은 270만명을 커버할 수 있는 양으로 최근 출현했던 H5N1 바이러스의 새로운 스트레인(clade)에 유효하도록 제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과 인적서비스 장관(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인 Mike Leavitt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유함으로써 H5N1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비계획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로이터

러시아

유럽연합에서 동물생산물 수입금지 예정

유럽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러시아가 유럽 연합의 새로운 멤버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동물위생기준(animal health standards)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EU로부터 동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대변인인 Philip은 러시아정부가 지난 11월 3일 유럽위원회에 통보해 왔다고 말했으며, 이런 발표는 식육과 그 생산물에 대한 유사한 금지조치로 교착상태에 있는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와 함께 유럽연합과 러시아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고 말했다.

- AP통신

네덜란드 AI 위협감소로 가금의 실외사육 허용

네덜란드 농업부는 지난 11월 21일 AI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따라 철새로부터의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을 막기 위해 취해진 가금의 실외사육 조치를 해제했다.

유럽연합에서의 야생조류 모니터링 결과 질병의 흔적이 없고, 인접국에서도 발생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아시아에서 유래하여 지금까지 152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H5N1의 확산에 철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큰 가금육 생산국인 네덜란드는 지난 9월 1일 실내사육을 조치한 바 있다. 🐔

- 로이터